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모델 만들기 : 장애 학생들의 일상에서 예술하기> 라는 주제로 약 6개월 동안 연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러 연구 활동 중 주요 활동 몇 가지를 엄선하여 요약, 정리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안무가, 예술교육가, 연구자로 활동 중이신 노경애 선생님의 인터뷰를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인 문화놀이터 단체 피터팬클럽 이승은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연구자들과 월곡중학교 특수교사들의 라운드테이블과 교사 대상 워크숍, 워크숍의 피드백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했습니다.

## 첫 번째 기록 :

안무가, 예술교육가, 연구자인 노경애 선생님과 인터뷰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기

노경애 선생님은 <듣다>, <보다>, <선의 리듬>, <여러 가지 선> 등의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작업하기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뇌 등이 조금 더 특수한 장애인 예술가들과 중장기간 동안 어떻게 소통하며 함께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듣고 나누어 보았습니다.

### 1. 각 자의 표준과 기준

그동안 시각, 청각 장애 및 뇌병변 예술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표준', '기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기준에 갖고 있는 생각들에 질문을 던지고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것에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각 장애는 눈이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청각 장애는 귀가 들리지 않는, 귀로 들을 수 없는, 뇌병변 장애는 뇌의 고장으로 인해 몸이 기울어져 있는, 몸이 불균형한 것으로, 장애인들의 몸과 감각이 무언가 잘 못 되었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장애가 각 자의 고유성, 좀 더 특별한 감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대신에 다른 감각들을 더 생생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조금 다른 방식의 보기, 귀로 들을 수 없는 대신에 다른 감각들로 듣기와 같이 오히려 특정 장애가 말 그대로 장애가 아닌 좀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질문과 생각으로 시각, 청각 장애인 예술가들을 만나고 함께 하나의 작업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뇌병변 장애의 경우에도 몸이 기울어져 있고,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은 비장애인의 기준에서 바라봤기 때문이고, 뇌병변 장애인들에게는 크고 작게 기울어진 몸이 각 자의 표준, 기준이지 않을까라는 질문과 생각으로 함께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표준과 기준이 아닌 각자의 표준과 기준으로 바라보고 만나서 함께 작업을 해 나가면서 장애인의 부족함이 아닌 비장애인이 갖고 있지 못한 장애인의 좀 더 특별한 감각, 능력을 하나 둘 발견해 나갈 수 있었고 그러한 발견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만남'이 아닌 '다양성, 각자의 고유성, 특수성을 가진 예술가들의 만남'이 될 수 있었습니다.

## 2. 즉흥성, 계획한 것들을 그 순간에 바꾸기

장애인 예술가들과의 작업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서울예술치유허브, 장애인 문화예술원, 리움 미술관, 국립 현대미술관 등에서의 워크숍도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장애인 예술가들과의 작업처럼 중장기 과정이 아니라 워크숍의 특성상 제한된 시간 안에서 표현, 소통 방식이 크고 작게 다른 발달장애 어린이, 청소년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워크숍을 함께 해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이 궁금하였습니다.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들과의 워크숍은 주로 단 한 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장애인 예술가들과의 작업에서처럼 '각자의 표준, 기준'까지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함께 작업했던 장애인 예술가들이 고기능이었던 것과 조금 다르게 워크숍에서 만난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들은 보다 다양한 기능, 개별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에서 그런 다양한 개별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즉흥성'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계획을 갖고 만나지만 실제로 만났을 때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다양한 개별성, 특성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에 계획했던 것들을 즉흥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자들의 표현, 행동들을 충분히 보고 느끼면서 계획했던 것을 그 순간에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를 순간적으로 찾고 시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들과 워크숍을 하고 나면 "내가 뭘 했던 걸까?"라는 질문, 고민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 고민의 순간에 나의 기준이 아닌 그들 각자의 기준은 무엇이였을까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3. 연구 \_ 진짜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또 질문하기

연구에서부터 창작이 시작됩니다. 창작을 위한 준비로서 연구가 아니라 연구 과정 자체가 창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듣다>, <보다> 프로젝트에서는 듣는다

는 건 뭘까? 본다는 건 뭘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존 연구 자료들을 찾아보는 게 아니라 조금 엉뚱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질문에 대한 탐구를 해봅니다.

<보다> 프로젝트에서 함께 했던 시각 장애인 예술가분을 통해서도 본다는 건 뭘까에 대한 질문과 내가 눈으로 본 것을 눈 대신에 다른 감각으로 보는 시각 장애인에게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구름,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그 시각 장애인 예술가분께서는 한 번도 구름과 하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 구름과 하늘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설명해야 할지 당황했습니다. 그런 질문, 생각지 못 했던 발견, 고민 등이 하나의 주제, 질문으로 시작했던 연구를 더 흥미롭게 이어주는 것 같습니다.

## 두 번째 기록 :

발달장애인 문화놀이터 단체 피터팬클럽 이승은 대표님과의 인터뷰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 피터팬클럽 대표님과의 인터뷰 요약본

이승은 대표님은 인터뷰 시간 동안 특수 예술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기관 및 예산 문제, 장애인 고용과 권리 중심 일자리의 중요성, 예술가들의 기획과 교육 역할, 그리고 장애인 예술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장애 아이들을 위한 외부 예술교육 방안을 모색하고,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특수학급 아이들을 위한 인력 풀 충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장애인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철폐 연대 및 부모 연대와의 협력이 요구되며, 장애인 특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의 활동 지원과 엄마들 간의 분란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예술교육 연구 계획 수립 및 학교 예술교육 지원 방안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말해주셨습니다.

#### 1. #특수교육 #예술교육의 필요성

선생님들은 아이들과의 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접근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술교육이 아이들에게 소근육 조절 같은 다양한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놀라움을 갖고 있지만 특수교육 안의 예술교육 과정은 미비하다고 여겨집니다. 대학이나 전문 기관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할 때 보다 세밀한 커리큘럼과 학사 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교사들이 이러한 소양(예술교육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 2. #특수교육의 현실 #시선

특수학급의 교육이 특수학교보다 수월할 수 있지만 여전히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큼니다. 초등학교 특수학급은 통합학교 중심으로 배치되며, 특수학교는

중증 및 초중증 아이들을 위한 배치 기준이 교육청에 의해 정해집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사회적 시선과 아이들의 학교생활 적응이 서로 영향을 미쳐 극단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생들의 예술교육은 주로 학교 밖의 복지관이나 센터에서 이루어지며, 정형화된 교육 환경이 아닌 독특한 공간에서 진행되곤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혼자서 살아남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느끼며,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스포츠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하드웨어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에게 공동체 공간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이러한 공간의 부족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3. #피터팬클럽 #문화예술 #장애인 예술가**

‘피터팬클럽’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터팬의 경우 예술사업의 예산은 강사비와 재료비를 포함해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터팬클럽의 회원비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기여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피터팬클럽에서는 장애인 예술가들이 미술과 음악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활동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교육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예술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갤러리에서 전시 및 판매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특화 일자리는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하며, 정책 및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 **4. #특수교육 속 예술교육 #지속성 #효용**

장애인 예술교육의 지속성과 효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모든 참여 주체가 서로 순환하는 생태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예술교육이 필수적이며, 민간단체의 역할 또한 중요합니다.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논의는 생태계 정의 정도만 다를 뿐이고, 실제로 이러한 생태계가 순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 **세 번째 기록 :**

**월곡중학교 선생님들과는 총 3번의 단계를 통해 협업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 첫 번째 단계 - 라운드 테이블

첫 번째로는 월곡중학교에서 총 10회차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난 뒤 월곡중학교 특수학급 선생님들과 프로그램 피드백을 포함해 '특수교육 안에서의 예술교육'이라는 조금은 큰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는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요약해보면 첫 째로는 특수교육 안에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예술교육의 현황을 나누었고, 다음으로는 특수교육 안에서 예술교육의 긍정적 영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할수록 긍정적 영향이 크다는 것에는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 안에서는 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 살펴보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이 특수학급 내에서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내에서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를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1차시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 특수교육 속 예술교육

특수교육에서 예술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특수학급에서의 예술 수업은 학생들의 감정 표현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력을 키우고 개인의 흥미에 맞는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특수교육 안에선 예술교육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 1. #특수교육 #예술교육의 긍정적 영향

예술 수업이 아동의 감정 표현과 사회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술 활동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미술 수업 후 아이들이 기분이 좋아지고 더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오후 수업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술 수업이 아이들에게 협동과 화합을 배우게 하고, 국어와 수학 같은 과목에서의 경쟁적 분위기와는 달리 모두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학습 스타일을 가진 아이들이 예술 수업을 통해 더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아이들의 전반적인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만들고, 다양한 표현 방법을 습득하는 데 기여합니다.

#### 2. #특수교육 #예술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특수학급에서 예술 교육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일반 학교의 예술 수업 부족과 외부 강사 의존,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의 지원과 교장 선생님의 협력이 필요하며, 교사 간 정보 교환과 학부모의 예술 교육 중요성 인식이 요구됩니다. 특수학생에게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도적 지원과 예산 확보의 필요합니다. 초등 특수학급에서는 방과 후 수업이 예술 과목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등 이후에는 진로 과목 선호 경향이 나타납니다. 또한, 일반 교사들은 예술 교육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전문성이 부족해 창의성 제한을 우려하며, 전문가의 도움과 교육 프로그램

통합이 필요합니다. 예술 교육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 필요하며, 참고할 수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특수학급에서 문화예술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 모색에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 3. #특수교육 #예술교육의 필요성 #협력 #연결

예술 교육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여겨지고 교사 연수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지역별로 접근성과 중요성이 다르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기적인 예술 강사 초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술 교육이 치료적 요소와 혼동되는 경향이 교육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음악과 미술 수업이 학생들의 자기 조절 능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과정의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예술 교육이 교육 과정에서 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특수교육과의 협력 및 연결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예술 강사의 공모 선정의 어려움과 '특수'라는 용어로 인한 접근 장벽, 정보 부족 문제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두 번째 단계 - 특수학급 교사들 대상 워크숍

지난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의 예술강사이자 연구자인 우리들은 일상 안에서 특수교사들이 학급의 학생들과 작게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예술교육 활동들을 소개하고 직접 교사들부터 체험하게 하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은 모두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외부 예산과 인력에 의존해야하는 상황이기에 어쩌면 지속가능한 예술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은 학급 내 교사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사들은 예술교육이라는 단어에 거리감을 느끼고, 본인들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연구자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선 그 어떠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교사들이 먼저 예술교육을 쉽게 접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에 진행한 10회차 프로그램 중 단독으로 빼내어 진행해도 누구든 쉽고 재밌게 해볼 법한 활동들을 정리하여서 워크숍을 계획하고 교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워크숍에서 한 주요 활동은 움직임 언어 만들기와 소리 언어 만들기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프로그램 가이드북을 참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세 번째 단계 - 워크숍에 대한 교사 피드백

교사들의 공통된 소감으로는 막상 활동을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에 참고로 들려주는 레퍼런스 음악이나 미술작품 등으로 예술적 감

수성이나 소양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가벼운 도입 활동들은 게임처럼 매일매일 루틴으로 학급 내에서 해도 좋을 거 같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더 나아가 악기나 소리를 탐색하고 발표를 할 때는 교과서처럼 어떠한 정답 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러한 점이 특수학급 내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피드백은 교사들 입장에서 학생들에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이 워크숍을 하면서 나조차도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하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을 이해하게 되고 가르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워크숍 이후 교사들의 피드백을 모두 들으며 기록했고, 이러한 피드백을 종합하여서 가이드북 프로그램의 전체 방향과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 지속 가능한 예술 교육 모델 만들기 : 장애 학생들의 일상에서 예술 하기

## 1. 움직임 언어 만들기

### ① 몸풀기 댄스

- 워밍업으로 랜덤 음악과 함께 각자 자유롭게 움직여보기

- 본격적으로 특정 신체 부위로만 춤추기

\* 손가락, 어깨, 무릎 등 특정 신체 부위로만 집중하여 춤춰보기

*Tip. 단 음악의 느낌과 정서를 있는 그대로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기*

*작은 움직임도 OK ! 큰 움직임도 OK !*

*그저 음악을 느끼는대로*

-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신체 부위별로 다른 장르의 음악과 함께 춤춰보기

\* 경쾌한 재즈, 신나는 팝, 웅장한 클래식, 차분한 피아노 연주곡

## ② 자기소개 단어 만들기

- 나를 소개하는 3가지를 글자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기

이름하여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무서워하는 것, 좋아하는 간식을 소개할게~!

*예시: 나는 쿠션을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은 초코하임이야.*

*나는 문을 무서워해.*

- 2단계는 금방 나를 소개한 3가지를 나만의 움직임 언어로 자유롭게 만들어보기
- 충분히 나만의 움직임 언어를 연습을 한 후는 전체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한 편의 공연을 발표하듯 돌아가면서 발표해보기

## ③ 움직임 문장 만들기

- 친구들 모두 다 같이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자기만의 움직임 언어로 각기 다르게 만들어보기

*Tip. 최대한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문장으로!*

*(예시 문장 : 오늘 학교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어.*

*이번 방학이 정말 기대돼!)*

- 이번에는 한 문장을 모두가 다 같이 단어별로 쪼개어 각자 표현할 파트를 각자의 움직임 언어로 만들어본 뒤 다 함께 발표하기

예시 : 나는 오늘 학교 끝나고 친구랑 놀 거야.

나는 오늘 - 학생1 파트

학교 끝나고 - 학생2 파트

친구랑 놀 거야 - 학생3 파트

각자가 맡은 파트를 나만의 움직임언어로 탐색하고 만들어본 뒤  
단어 순서별로 문장이 이어지게 순서대로 표현해본다.

*Tip. 이때는 손과 발 이외에도 어깨, 골반, 손가락 등 몸의 부위를 다양  
하게 사용해보기*

#### ④ 다양한 모양의 타이포그래피를 움직임 언어로 표현



다라



ZESS TYPE

# 왜

다라

- 다양한 모양의 글자를 보고 다함께 각자의 움직임으로 글자의 느낌을 표

현해본다.

- 각자의 움직임을 다 만들었다면 전체 친구들과 한 번씩 돌아가며 한명 한명의 움직임을 따라해보기
- 더 나아가 움직임으로 단어 맞추기 게임. 일명 몸으로 말해요!
- \* 선생님 혹은 친구의 움직임을 보고 표현한 단어 타이포그래피 카드를 맞추기

## 시각 언어 만들기

### ① 다양한 감정을 이모티콘 표정으로 표현하기

- 실제활동사진1)



- 출처 : 24서울문화재단 자율기획 문화예술교육 월곡중학교 수업 사진
- 이번 주에 내가 느꼈던 감정 중의 하나를 떠올려보고 감정 카드 중에 해당 되는 것 하나 고르기
- 눈 부위, 입 부위 두 가지로 나뉜 이모티콘 그림을 조합하여 아까 내가 선택한 감정과 어울리는 이모티콘을 완성하기

*Tip. 예시 활동으로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먼저 다 같이 하나의 감정을 선택해보고 그 감정에 따른 이모티콘을 만들어본 뒤 개별활동 시작~!*

### ② 나만의 '표정 이모티콘' 만들기

- 구체적인 상황 카드를 제시하고 태블릿 카메라를 활용해 자신의 얼굴표정을 관찰하며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을 탐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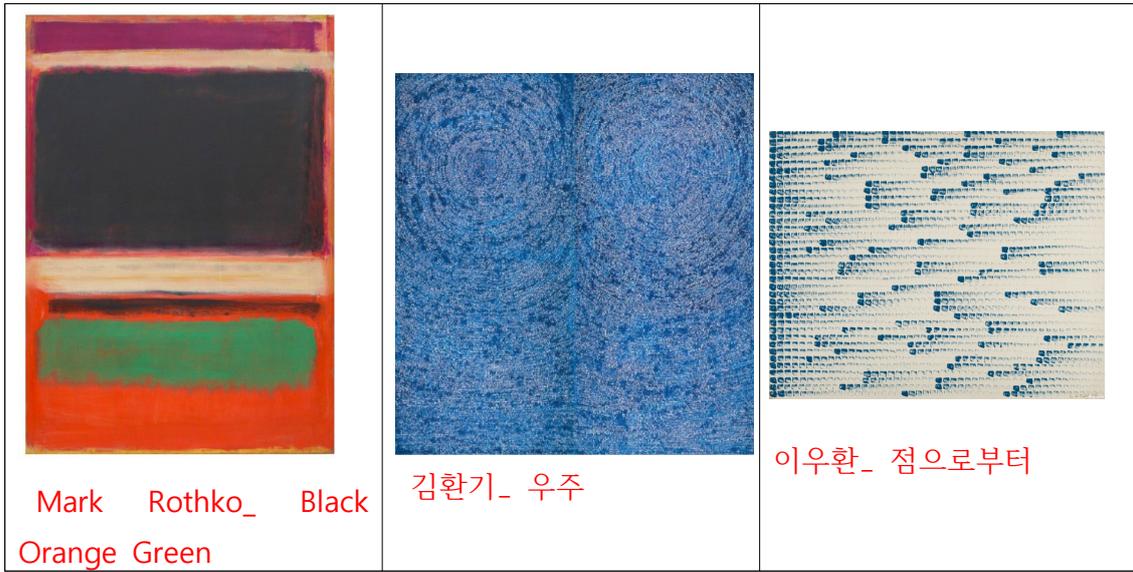
- 태블릿으로 자신의 얼굴을 사진 촬영하고, 사진 이미지에 이모티콘처럼 꾸미기

**<구체적인 상황카드 예시>**

- 게임에서 이겼을 때
- 시험에서 찍은 문제가 정답일 때
- 잘못된 행동을 내가 안했는데 다들 날 의심할 때
- 다른 사람보다 내가 훨씬 잘 하는 걸 발견했을 때
- 내가 노력한걸 다른 사람이 인정해줄 때
- 친한 친구가 전학갈 때
- 좋아하는 이성친구에게 고백했는데 차였을 때
- 친구가 넘어져서 크게 다쳤을 때

**③ ‘즉흥 드로잉’으로 자기 표현해보기**

- 예시 그림을 보며 즉흥 드로잉에 대해 알아보기
- 예시그림)



-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큰 종이 혹은 광목천에 자유롭게 표현하기
- \*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면적이 큰 종이(흰 천)를 바닥이나 벽에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간을 돌아다니며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세요

- 실제 활동사진2)



- 출처 : 24서울문화재단 자율기획 문화예술교육 월곡중학교 수업 사진

*Tip. 어떤 형태가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와 색깔을 탐색해보도록 유도해보세요.*

- 즉흥 드로잉 과정에서 발견한 느낌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기

#### ④ 나의 이야기를 글과 색깔로 표현해보기

- 실제 활동사진3)



- 출처 : 달리아 선생님 수업 사진

- 학교에 처음 왔을 때의 기분, 감정을 감정 카드에서 고르고 관련한 이야기 나누기
- 고른 감정카드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문장 또는 간단한 글로 써 보기
- 나의 감정과 이야기를 즉흥 드로잉으로 표현하기

*Tip. 나의 감정이나 이야기도 종이에 같이 적어보면 더 좋아요!*

## 음악 언어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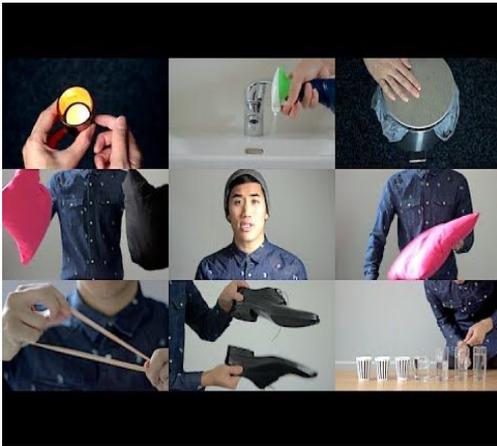
### ① 악기로서 사물 및 자연물 소리 탐색하기

- 가장 먼저 사물 및 자연물 악기 연주 영상을 함께 감상하기

<https://youtu.be/S8Cqyi5WxSU?si=s9ImGamok6NTerok>

<https://youtu.be/fOCaNBGMMgE?si=KC9fxQ7a4yERZxDu>

<https://youtu.be/cXUXQSJCEso?si=TSWb8F5T5vKLRa-1>



- 출처 : 유튜브 'Hit Songs of 2014 - Performed with Household Items



- 출처 : The Imagination Tree

- 영상 속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물 및 자연물 악기를 자유롭게 소리내며 탐색해보기

\* 준비물 : 교실, 집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사물들, 물, 플라스틱 박스, 다양한 크기의 컵

*Tip. 사물 또는 물을 가지고 다양하게 소리를 내고 탐색할 때 빠르기, 셈여림, 높낮이를 다르게 유도하고 진행해보세요!*

- 탐색이 끝나면 각자가 10초짜리 연주곡을 만들어보기
- 연습이 끝나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릴레이로 연주하고 녹음하기
- 녹음한 연주를 함께 들어보고 감상 나누기

## ② 단어를 악기 연주로 표현하기

\* ②,③ 활동 준비물 : 사물 및 자연물 악기, 북, 실로폰, 칼림바, 우쿨렐레, 작은 타악기들(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등), 다양한 채

- 워밍업 단계로 선생님의 진행 아래 준비한 단어카드 중 2-3가지를 골라 다 함께 악기 연주로 자유롭게 표현해본다.

### <단어카드 예시>

[달리다], [걸어가다], [느릿느릿], [비가 내린다], [바람이 분다], [천둥번개], [매미 소리], [새 소리], [침병 침병], [똑딱똑딱]

\* 움직임이나 소리가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단어들

Tip. 꼭 대단한 음악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소리를 한 번만 내는 것도 연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사물악기 탐색시간처럼 빠르기, 셈여림, 높낮이를 다양하게 해볼 수 있게 유도해주세요~!

- 본격적으로 학생들이 각자 단어와 악기를 고르고 음악을 만들기
- 충분히 연습했으면 한 사람씩 돌아가며 자신의 연주를 발표하기
- \* 여유가 된다면 한 사람의 단어 음악 발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악기로 덧붙여 연주해 봐도 좋아요!

### ③ 문장을 악기 연주로 표현하기

- 워밍업으로 선생님의 진행아래 준비한 문장카드 중 1-2가지를 다 함께 악기 연주로 표현하며 예시 만들기
- \* 이때 하나의 문장을 각자 파트를 나눠 역할을 나눈다.

(예)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빙수가 최고지!

학생1파트 / 학생2파트 / 학생3파트

### <문장카드 예시>

[매미들이 소리가 점점 커졌다가 점점 작아진다], [비가 작은 소리로 빠르게 내린다], [수영장에서 두 발로 신나게 첨벙첨벙 물장구를 친다], [더운 여름날에는 시원한 빙수가 최고지], [시험은 긴장되지만 시험공부는 하기 싫어], [오늘 학교 끝나고 뭘 할까?], [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지금 너무 피곤해], [내일은 주말이라서 기분이 좋아]

\* 움직임이나 소리가 분명하게 보이고 들리는 또는 학생들의 생활과 연결된 문장들

- 함께 표현해 볼 문장들 고르고 음악 만들기
- 함께 연주해보기

#### ④ 시나 가사를 악기 연주로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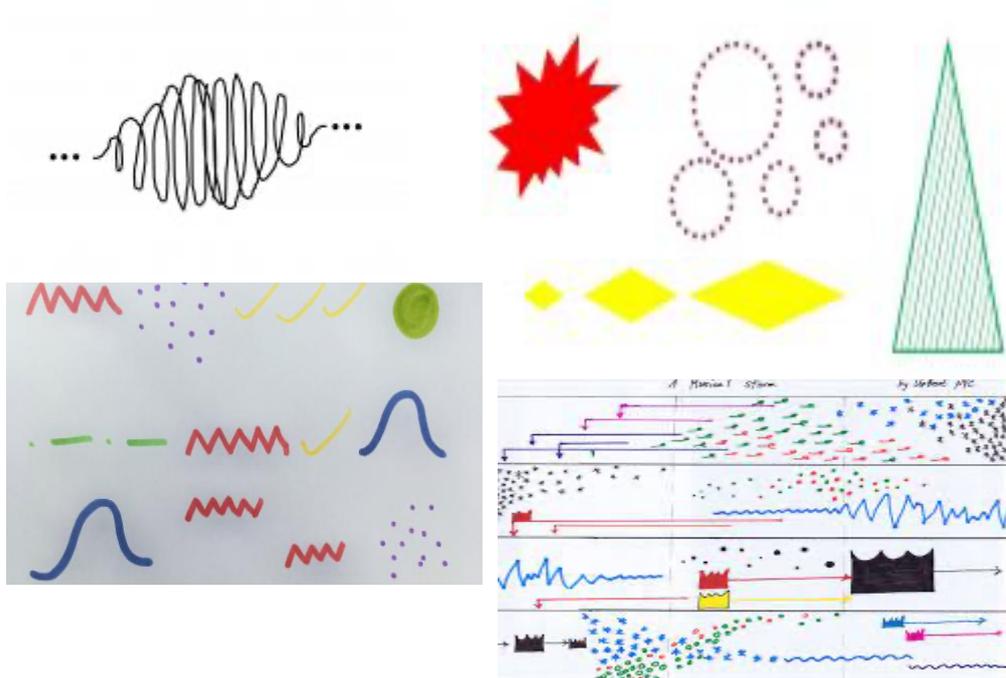
- 시 또는 가사를 각자 한 문장씩 역할 정하기
- 각자의 문장을 악기 연주로 표현하기
- 순서대로 이어서 악기 연주하기

*Tip. 마지막 연주할 때 릴레이 연주를 녹음하고 함께 음악을 들어봐도 좋아요!*

#### ⑤ 그림 악보 만들기

*\*준비물 : 도화지, 전지, 색연필, 싸인펜, 도트 물감*

- 그림 악보 예시 감상하기



- 출처 : Birmingham Contemporary Music Group

- 이전 활동에서 만들고 연주한 시 또는 가사를 그림 악보로 만들기
- 음악의 순서대로 그림 악보를 전시하기
- 그림악보를 보며 시 또는 가사 내용과 음악을 떠올려 보기

*Tip. 내가 연주하고 싶은 그림 악보를 고르고 연주해도 좋아요!*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현지 우주 회화책 : 우주 행성에서 원어민처럼 소통하기>

장애 청소년들의 지속 가능한 예술교육을 위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예술강사들이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운영한 10회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예술교육 가이드북을 제작하였습니다.

-주최 : 임진희

-주관 :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연구원 : 임진희, 윤혜정, 이원선

-아카이브 : 우종우

-기획 : 이우미

-도움주신 분들

월곡중학교 김민선 선생님, 김희은 선생님

피터팬클럽 이승은 대표님

